

# Braskem, 에틸렌 · PE 60만톤 투자

## 볼리비아와 천연가스 공급협상 ... 2005년 콤플렉스 건설 여부 결정

Braskem이 브라질 Corumbá에 에탄(Ethane)계 에틸렌(Ethylene) 및 PE(Polyethylene) 콤플렉스를 건설하기 위한 예비조사에 들어갔다.

Corumbá는 볼리비아와의 국경에 위치해 있어 볼리비아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을 계획으로 에틸렌 및 PE를 각각 60만톤 가량 생산하게 될 전망이다.

Braskem은 볼리비아 정부와 천연가스 가격협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PE 시장전망에 따라 2005년까지 콤플렉스 건설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협상이 완료되면 2008-10년 완공할 예정이다.

Braskem은 현재 Rio Polimeros 컨소시엄(BNDES, Petrobras, Suzano 및 Unipar)이 건설하고 있는 PE 콤플렉스의 천연가스 가격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경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io Polimeros의 PE 50만톤 플랜트는 2005년 시장에 흡수될 전망이다.

한편, Braskem은 핵심사업인 열가소성 수지(Thermoplastic Resin) 사업과 관련 없는 사업을 처분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자세한 사항을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Braskem은 남미 최대 석유화학기업으로 2002년 8월 PP(Polypropylene) 및 PE 생산기업 OPP Zuimica, Vinyl 메이커 Trikem, 카프로락탐(Caprolactam) 생산기업 Nitrocarbono 및 PE 메이커 Polidalden의 합병으로 설립됐다.

Braskem은 현재 브라질 Camaçari의 Copene에 최대 크래커를 보유하고 있으며 Ipiranga Petroquímica와 함께 Triunfo의 Copesul에 남미 2위 규모의 크래커를 가동하고 있다.

Braskem은 Triunfo 소재 PP 생산라인을 Debottlenecking하는데 700만달러를 투자하고 있으며 생산능력을 총 55만톤으로 10만톤 증설하고 있다. 이 외에 Camaçari 소재 PVC(Polyvinyl Chloride) 플랜트의 Debottlenecking도 계획하고 있다.

Braskem은 수년 동안 막중한 부채부담으로 곤혹을 치렀으나 부채/EBITDA(Earning Before Interest, Taxes, Depreciation & Amortization) 비율이 2002년 7.0에서 현재 3.5로 하락했으며 2003년 말에는 3.0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Braskem은 행정 및 인사 비용감축을 비롯해 4개 기업을 통합으로써 2003년 9월 총 2억6000만레알(8890만달러)의 코스트를 절감할 수 있었다. Braskem의 순수익은 2002년 3/4분기 14억레알에서 2003년 3/4분기 5800만레알(1980만달러)로 감소했으며 매출은 22억레알로 변동이 없었는데 환률변동, 비순환비용(Non-Recurring Expense) 및 영업권 상각비(Amortization of Goodwill) 등이 수익감소의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Chemical Journal 2004/01/12>